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 텍스트판 23-45쪽. 역자 각주에 따르면 원래는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ISBE, 1915)의 항목 "The Biblical Idea of Revelation"이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먼저 성경의 종교가 사람이 신을 찾아 만든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다. 죄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계시 종교'라는 것이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계시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주신 특별계시를 구분한다. 다만 둘은 처음부터 계획된 한 짝이며, 함께 일할 때만 효과를 낸다. 특별계시는 개인에서 민족으로, 마침내 온 세상으로 점차 펼쳐졌다. 그것은 구원 행위에 덧붙인 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계시의 방법은 외적 현현·내적 암시·협력 작용 세 가지다. 어느 방법이든 사람을 거쳐 왔어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끝으로 성경의 계시 용어를 살펴, 신약에서 '말씀'과 '율법'이 기록된 계시 전체, 곧 '성경'을 가리키게 되었음을 보인다. 이렇게 다음 장들(영감과 권위)로 가는 길을 연다.

📜 절별 정리

📜 1. 계시의 본질

워필드는 성경의 종교가 '초자연적' 종교라고 못 박는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일반적인 뜻을 넘어서는 말이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끼어드셨고, 그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을 잃었으리라는 뜻이다.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하시던 하나님은 타락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 오히려 곧바로 역사에 개입해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셨다. 그 선택은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이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고, 이방인은 소망 없는 자로 묘사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다. 비와 결실기와 창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탓이다. 이 때문에 창조와 섭리의 계시만으로는 부족해졌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

1. 성경의 종교 = 하나님이 개입하신 계시 종교
2.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다
3. 이스라엘 선택은 자격이 아닌 은혜
4. 선택의 목적은 온 세상의 복
5. 하나님을 모르는 건 사람의 죄 탓

> **창세기 3:8**
>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눈 친밀한 교제
>
>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신명기 4:7; 시편 145:18**
>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신다 — 이스라엘의 특징
>
> **신명기 4: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
> **시편 145: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 **창세기 12:2-3; 17:4-6, 16; 18:18; 22:18; 로마서 4:13**
> 선택의 궁극 목적은 온 세계를 축복하는 것
>
> **창세기 12:2-3**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창세기 17:4-6 [4]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로마서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2:3

죄로 온 세상에 내린 저주를 거두려는 목적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편 147:19-20 (원문 '19 이하')

말씀과 규례는 한동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시편 147:19-20 [19]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22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유대인에게서” 났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에베소서 2:12

계시 밖의 이방인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행전 14:17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선한 증거를 남기셨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7:27

섭리로 누구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20

창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1-25 (원문 '1:21 이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인은 죄로 어두워진 마음

로마서 1:21-25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2. 계시의 종류

계시에는 두 종류, 또는 두 단계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주시는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로, 구원하는 은혜를 알린다. 시편 19편이 이 둘을 함께 보여 준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살린다. 워필드는 베이컨의 말을 빌린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해도 그분의 뜻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계시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에게, 둘째 계시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한다. 두 계시는 서로 맞서지 않고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일반계시만 있으면 죄인은 핑계를 못 댈 뿐이다. 반대로 일반계시가 없으면 특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초 지식을 잃어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된다. 특별계시는 타락이라는 뜻밖의 사고를 수습하려고 나중에 끼워 넣은 처방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의 대책이었다. 에덴에서도 계시는 단순한 자연계시가 아니었다. 명령이 있었고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생긴 것은 계시의 '초자연성'이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성'이다. 타락 뒤 자연계시는 초자연적 성격을 잃었다. 하나님은 섭리와 일반은총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이방인도 본성을 따라 선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이방 세계 어디에도 새어 나가지 않았다. 원래 알던 종교의 진리마저 쇠퇴해 로마서 1장이 그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에덴과 홍수 뒤의 원시 계시가 남긴 흔적이나 이스라엘과 접촉해서 받은 영향은 인정한다. 아비멜렉·바로·느부갓네살의 꿈 같은 예외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 그쳤고, 그마저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방 민족 자체에는 계시가 없었다.

1. 일반계시: 모든 사람, 능력과 신성
2. 특별계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

4. 특별계시는 사후 처방이 아닌 처음 계획

5. 죄가 낳은 건 계시의 '특별성'이다

> **시편 19:1-7**
> 하늘의 영광(일반계시)과 여호와의 율법(특별계시)이 한 시편에 나란히
>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 없도다 …

> **시편 19:14**
> 계시가 결국 구원 기도(“나의 구속자”)로 이어진다
>
>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 **로마서 1:20**
> 일반계시만 있는 곳의 결과는 '핑계할 수 없음'뿐
>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창세기 2:16**
> 에덴에도 실제 명령이 있었다 — 단순한 자연계시가 아니었다
>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 임의로 먹되

> **창세기 3:24 (본문은 장절 없이 언급)**
> 그룹과 화염검 — 직접 교제가 끊어졌다

창세기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로마서 2:14 (장절 없이 암시)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 일반은총의 열매

로마서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1:18-32 (원문 '1장 후반부')

이방 세계의 하나님 지식이 쇠퇴한 결과

로마서 1:18-32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창세기 3:8; 8:21-22; 9:1-17

에덴 입구와 홍수 뒤에 주신 원시 계시

창세기 3: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8:21-22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illegible]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씨앗과 [illegible]

창세기 9:1-17 [1]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창세기 20장; 40-41장; 다니엘 2장; 사사기 7장

이교도에게 꿈을 주신 예외 — 그것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창세기 20장 [1]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

다니엘 2장 [1]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

사사기 7장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

사도행전 14:16

이방 민족은 각자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특별계시의 초자연성이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의 특별성이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계시로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특별계시는 처음에 한 개인에게, 다음에 가족·종족·민족에게 주어졌다. 때가 차자 마침내 온 세상의 소유가 되었다. 왜 점진적으로 주셨는지 성경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이 창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평소 방식이다. 여기서 워필드는 당시 널리 퍼진 주장에 맞선다. 계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만 온다는 주장이다. 그의 답은 이렇다. 계시는 결국 이해와 지식을 겨냥한다. 그런데 설명 없는 초월적 행위는 지식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설명을 덧붙이셨다. 더 나아가 계시는 행위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 행위다. 행위에 앞서 길을 닦고, 함께 가고, 뒤따라 뜻을 풀어 준다. 이유는 인간이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죄는 무엇보다 인간 지성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성적 존재로 대하며 계시로 구원하신다. 끝으로 형식에도 발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신현의 시대(족장), 예언의 시대(사무엘 이후), 영감의 시대(신약, 기록된 말씀)로 나누는 견해다. 이에 맞춰 계시의 세 방법을 외적 현현·내적 암시·협력 작용으로 정리한다. 이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연대순으로 억지로 맞추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단다.

1. 계시는 개인→민족→온 세상으로 확대
2. 점진성은 하나님이 평소 일하시는 방식
3. 행위만으론 계시가 아니다, 설명이 필요
4. 계시는 그 자체가 구원 행위다
5. 세 방법: 현현·내적 암시·협력 작용

> **요한복음 17:3 (장절 없이 인용)**
> 하나님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 — 구원에 지식이 필요한 근거
>
>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빌립보서 2:12 (장절 없이 인용)**
> 계시는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이끈다
>
> **빌립보서 2:12**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내 앞에뿐 아니라 더욱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 4. 계시의 방법 ① 세 방법, 한 분 하나님

외적 현현에는 신현(불타는 떨기나무, 구름 기둥,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과 기적, 역사 속 초자연적 개입이 들어간다. 내적 암시에는 환상과 꿈, 그리고 예언의 말씀 전체가 들어간다. 이것들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협력 작용은 찬송·서신·역사서처럼 기록된 계시의 방식이다. 성령이 사람의 활동, 심지어 의지의 통제까지 없애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 통해 일하셔서 결과물에 사람을 뛰어넘는 성질을 주신다. 이 방법들이 어느 시대에나 섞여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한 말로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모세가 받은 계시와 다른 선지자가 받은 계시 사이에 신적 성격이나 권위의 차이는 없다. 꿈으로 받은 계시가 더 낮은 등급이라는 암시도 성경에 없다. 계시의 가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분과 방식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하나인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신현은 누가 봐도 초자연적이다. 반면 사람의 입과 지성을 쓰는 계시는 초자연성이 가려져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적 수단을 강조해 계시의 초자연성을 깎는 견해가 생긴다. 워필드는 성경이 모든 방법에 똑같이 절대적 초자연성을 돌린다고 답한다.

1. 현현: 신현·기적·역사 개입
2. 내적 암시: 꿈·환상·예언의 말씀
3. 협력 작용: 사람 활동 속 성령의 일
4. 모세의 영예 ≠ 더 높은 권위
5. 꿈도 열등한 계시가 아니다

> **민수기 12:6**
> 환상과 꿈은 예언의 전형적 방식
>
>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민수기 12:8

모세와는 입을 맞대고 분명히 말씀하심 — 영예의 차이일 뿐 권위의 차이는 아님

>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34:10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

>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18:18

선지자들도 “명령하는 것만” 말한다 — 모세와 같은 순전함

>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 4. 계시의 방법 ② 예언 — 입에 두신 말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하셨다고 증언한다. 워필드는 이것이 묘사하는 과정을 '받아쓰기'라고 부른다. 다만 그 정확한 방식은 열어 둔다. 출애굽기 4장과 7장이 가장 생생한 예다. 입을 지으신 분이 입과 함께하시며 말할 것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 그래서 '선지자'(נָבִיא, 나비)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한다. 예언은 늘 “여호와의 말씀”(נְאֻם יְהוָה, 네움 야웨)으로 선포된다. 동시에 선지서들은 예언을 '본 것'으로 소개한다(“이사야가 본 계시”). 이것을 옛 환상 시대의 흔적이나 관습적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과장하면 안 된다. 하나는 모든 예언이 육체의 눈과 귀로 받은 외적 현상이었다는 과장이다. 이러면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구분(민수기 12:6-8)이 무너진다. 다른 하나는 선지자가 정신이 완전히 멈춘 황홀경에 빠졌다는 과장이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정신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친다. 베드로후서 1:21의 “감동하심을 받아”(φερόμενοι, 페로메노이)는 끌려가거나 안내받는 정도가 아니다. 실려 가듯 움직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동성'은 지성을 꺼 버렸다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일에는 능동적이었으나(수용적 능동), 메시지를 지어내지는 않았다는 (창조적 능동의 부정)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동 저자가 아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선지자마다 개성이 보이니 계시는 '심리적·도덕적으로' 전달된 선지자의 영적 소유물이고, 선지자가 참 저자 아니냐는 것이다. 워필드는 이 반론이 선지자들 자신의 증언과 정면으로 부딪친다고 답한다. 하나님은 도구를 직접 만드셨고 각 도구의 본성에 맞게 쓰신다. 지적 존재는 지적 존재답게 쓰신다. 또 하나님은 언어도, 각 사람의 말투도 지으셨다. 그러니 개성의 흔적은 '인간 언어로 전해졌다'는 사실의 일부일 뿐, 메시지의 순전함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이 개성에 맞춰 겉모양만 꾸민 착시도 아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도구를 본성대로 쓰시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신 결과다.

1. 선지자 = 하나님의 입, 대변인(나비)
2. 예언은 '들은 말'이자 '본 것'
3. 외적 현상설·황홀경설 둘 다 과장
4. 수동성 = 지어내지 않음, 지성은 깨어 있음
5. 개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의 흔적

> **신명기 18:15, 18, 20**
> 선지자를 계속 세우겠다는 약속 —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심
>
> **신명기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
> **신명기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
> **신명기 18: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 1:9; 5:14; 이사야 51:16; 59:21; 민수기 22:35; 23:5, 12, 16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

예레미야 1: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5: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사야 51: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민수기 22:35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민수기 23: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민수기 23:12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민수기 23:16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에스겔 3:4

"내 말로" 고하라 —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님

고하라

출애굽기 4:10-17; 7:1-7

입을 지으신 분이 가르치심,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 — 가장 생생한 예

출애굽기 4:10-17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

출애굽기 7:1-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에스겔 3:26-27 (원문 '3:26 이하')

입을 여닫는 것도 주님이 하심

에스겔 3:26-27 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사야 57:19; 6:7; 예레미야 1:4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이 지으심 (번역서 표기는 '사 1:4'이나 문맥상 예레미야 1:4로 보임 — 원서 확인 필요)

이사야 57: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레미야 1: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사야 50:4-5

주님이 귀를 여셔서 알아듣게 하심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 1:1; 2:1; 13:1; 아모스 1:1; 미가 1:1; 하박국 1:1

예언서 첫머리의 '보았다' 표현

이사야 1: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13: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받은 말씀이라

미가 1: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박국 1: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레미야 38:21; 예레미야애가 2:14; 에스겔 1:3-4; 하박국 2:1-2

말씀을 '보았다'는 선지자의 생생한 의식

예레미야 38:21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애가 2: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에스겔 1:3-4 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박국 2:1-2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민수기 12:6-8

모세의 방식과 선지자의 방식은 구분된다 — 외적 현상설 반박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에스겔 13:2-17; 예레미야 23:16-26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말한다 — 참 예언의 객관성

에스겔 13:2-17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

예레미야 23:16-26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

사무엘상 10:6-10; 느헤미야 9:30; 스가랴 7:12; 요엘 2:28-29

선지자를 움직인 힘은 여호와의 영

사무엘상 10:6-10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9]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느헤미야 9:3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스가랴 7: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요엘 2:28-29 [28]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호세아 9:7; 이사야 42:1; 미가 3:8

영에 감동된 자, 영이 임하고 충만한 자

호세아 9: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이사야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미가 3: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열왕기하 3:15; 에스겔 1:3; 3:14, 22; 33:22; 37:1; 40:1

여호와의 "손"이 임함 — 완전하고 강력한 지배

에스겔 1: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3:14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에스겔 3: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33:22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40: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베드로후서 1:20-21 (번역서의 '1:11'은 1:21의 오기)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실려 말한 것 — 수동성의 핵심 구절

베드로후서 1:20-21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4. 계시의 방법 ③ 협력 작용과 그리스도

협력 작용은 예언과 다르다. 역사 연구, 논리적 추론, 윤리적 사고, 신앙의 갈망 같은 사람의 개성 전체가 한 요소로 쓰이기 때문이다. 흔히 이것을 성령의 '도움·감독·지시

성경의 기원을 성령의 느슨한 '인도'로 낮춰서도 안 된다. 둘째, 성령을 사람의 능력 밖에서 모자란 부분만 메워 주는 보조자로 보면 안 된다. 성령은 사람의 능력 안에서, 함께, 통해 일하신다. 그 능력을 높이고 이끌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결과물은 참으로 인간적인 특징을 지니면서도, 사람만으로는 낼 수 없는 초자연적 산물이 된다. 바울이 자기 글을 “성령이 가르치신 말”, “주의 명령”이라고 한 것이 그 증거다. 모든 특별계시는 이 세 방법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다. 단 하나의 예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계시를 '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계시가 주어지는 독특한 분이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신현은 그분에 비하면 그림자다. 선지자들도 그들 안의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 주신 만큼만 말했다. 그러나 사실만으로는 계시가 전해지지 않는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일을 취해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한다. 신약성경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계시는 완성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쳤다.

1. 협력 작용은 사람의 개성 전체를 쓴다
2. 성령은 밖의 보조자가 아니다
3. 결과는 참 인간적이며 초자연적
4. 그리스도 = 계시 그 자체
5. 사실+말씀으로 계시 완성, 그리고 그침

> **베드로후서 1:20-21**
> 성경 기원을 '인도'로 약화하지 말라는 경고의 근거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고린도전서 2:13**
> 사도의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말
>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골로새서 2:9 (장절 없이 암시)

신성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심 — 그리스도의 독특성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고린도전서 1:30 (장절 없이 암시)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의·거룩함·구속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모스 3:7 (장절 없이 암시)

선지자는 '종'으로서 비밀을 받는다 — 아들과의 대비

아모스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복음 16:14-15 (장절 없이 암시)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 알리심

요한복음 16:14-15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10:4 (장절 없이 암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 계시의 마침이기도 하다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5. 성경이 말하는 계시

마지막으로 워필드는 성경의 계시 단어들을 살핀다. 큰 새 정보는 없지만 앞의 결론을 확인해 준다. 흠정역(KJV)에서 'reveal'은 51번 나온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갈라(גָּלָה, 덮개를 벗기다)와 아람어 겔라, 신약에서는 대개 아포칼륍토(ἀποκαλύπτω, 덮개를 벗겨 드러내다)를 옮긴 말이다. 파네로오(φανερόω)는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반적인 말이고, 아포칼륍토는 더 특별하고 내적인 말이다. 그 밖에 에피파네이아(ἐπιφάνεια, 나타남), 데이크뉘미(δείκνυμι, 보여 주다), 엑세게오마이(ἐξηγέομαι, 알려 주다)가 있다. 크레마티조(χρηματίζω, 신탁으로 지시하다)는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뜻하는 특별한 말이다. 구약에서는 라아(רָאָה, 보다)에서 로에(רֹאֶה, 선견자)와 마르에(מַרְאֶה, 나타남)가 나왔다. 하자(חָזָה, 보다)에서는 호제(חֹזֶה, 선견자)와 하존(חָזוֹן, 환상)이 나왔다. 앞의 계열은 외적 현현 쪽으로, 뒤의 계열은 내적 계시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단,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다. 야다(יָדַע)의 사역형은 '알게 하다'로, 장애물만 걷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만든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두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דְּבַר יְהוָה, 드바르 야웨)과 토라(תּוֹרָה, 본뜻은 '가르침')다. 앞의 것은 계시의 은혜를, 뒤의 것은 권위를 강조한다. 신약에서 '말씀'은 복음, 곧 구속의 계시가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전체가 된다. 둘은 한 계시의 두 얼굴이다. 이제 그 계시 전체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신약은 “기록된” 말씀을 전통과 대비하고,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말로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두 개념이 나온다. 하나는 권위 있는 정경 개념으로, 초대 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우며 세웠다. 다른 하나는 정경이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의 전통 우위와 열광주의의 '내면의 말씀'에 맞서 세웠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성경을 법률 문서(Instrumentum)라 불렀다. 요한 게르하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계시의 기록을 담은 책일 뿐 아니라, 그 전체가 계시다. 오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 계시 단어의 기본 뜻은 '벗겨 드러냄'
2. 라아=외적, 하자=내적 쪽으로 기움
3. 말씀=은혜, 율법(토라)=권위
4. 신약에서 둘 다 '기록된 성경' 전체

누가복음 2:35; 데살로니가후서 1:7; 베드로전서 4:13

아포칼립토 용례의 예외와 명사형(아포칼립시스)

누가복음 2: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데살로니가후서 1: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전서 4: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8; 디모데전서 6:14; 디모데후서 1:10; 4:1; 디도서 2:13

에피파네이아(나타남)

데살로니가후서 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디모데전서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도서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11; 3:4

에피파이노(나타나다)

디도서 3: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요한계시록 1:1; 17:1; 22:1, 6, 8; 사도행전 9:16; 디모데전서 4:15

데이크뉘미(보여 주다)

요한계시록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22: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행전 9: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디모데전서 4: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요한복음 1:18

엑세게오마이 — 아들이 아버지를 알려 주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크레마티조/크레마티스모스 — 하나님의 직접 지시

마태복음 2: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누가복음 2: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사도행전 10: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히브리서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2: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로마서 11: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민수기 12:6; 다니엘 8:15-16

마르아(방법 강조)와 하존(내용 강조)의 구분

다니엘 8:15-16 [15]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내가 들은즉 을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시편 98:2; 시편 25:4 (역주)

야다가 '벗기다'(갈라), '가르치다'(라마드)와 짝을 이룸

시편 98:2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시편 25: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민수기 24:16; 시편 19:2

다아트(지식) — 야다의 명사형 쓰임

민수기 24: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시편 19: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사야 1:10; 2:3; 미가 4:2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가르침)”이 나란히 — 계시 전체

이사야 1: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가 4: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요한복음 15:25; 고린도전서 15:54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가복음 7:10

하나님의 말씀 vs 사람의 전통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베드로후서 1:19

기록된 계시 전체 = “예언의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0:34; 로마서 3:19; 고린도전서 14:21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킴

요한복음 10: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덮개를 벗기듯 드러내 알려 주시는 일.

일반계시·특별계시
창조와 섭리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와, 죄인을 구원하려고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계시.

섭리·제2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붙들고 다스리시는 일, 그리고 그때 쓰시는 자연의 원인과 질서.

일반은총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은 아니지만 선과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신현
불타는 떨기나무, 구름 기둥,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일.

원복음
타락 직후 에덴 입구에서 주신 첫 복음의 약속. 흔히 창세기 3:15를 가리킨다 (이 장은 장절을 적지 않음).

영감(예언적·사도적)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기록하게 하시는 일. 이 장에서는 계시의 한 방식 이름으로 쓰인다.

성령이 사람의 생각·연구·기억·감정을 없애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하셔서, 사람의 글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방식.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권위 있는 성경 책들의 목록.

열광주의
성경보다 개인이 직접 받는다는 '내면의 말씀'이나 영적 체험을 더 높이는 운동.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종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곧 계시에서 시작된다.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한 짝이다. 특별계시 없이 죄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 계시는 행위에 붙은 설명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 행위다. 꿈이든 예언이든 기록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다.
-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계시 전체가 지금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3편 · 자연이 말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